

## No.17 - 엔노 교자 대동상

이 입상은 1951년에 슈겐도의 시조인 엔노 교자(634~701)의 사후 1250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엔노 교자는 바위에 걸터앉은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동상은 서서 앞을 바라보고 있는 매우 드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니혼료이키(日本靈異記, 일본영이기)라는 설화집에 따르면 엔노 교자는 나라현에 있는 현재의 고세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산에 대해 깊은 관심을 품고 있었던 그는 고세 마을 서쪽에 펼쳐진 가쓰라기산의 숲속에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스스로를 수행의 길에 바친 엔노 교자는 널리 일본 전역을 여행하며 평생을 보내고 수많은 영봉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긴푸센지 절과 오미네산의 오미네산지 절 등 슈겐도의 성소를 열었습니다.

엔노 교자에 대해서는 수많은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젠키(前鬼)와 고키(後鬼)라는 이름의 두 요괴를 붙잡아 마음을 고쳐먹게 만들었다고도 하며, 세상을 떠날 때는 어머니를 쇠로 된 바리때에 태운 뒤 오색 구름을 타고 승천했다고 합니다. 이때 개심한 요괴들은 그후 엔노 교자를 섬기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엔노 교자는 그와 관련된 대부분의 작품에서 젠키와 고키를 거느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